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

키움증권

## 미 증시,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완화에도, 종목 장세 연출되며 혼조세

#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7일(목) 미국 증시는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 후 관련 불확실성 완화, 스티븐 미란의 연준 이사 지명 등에 따른 9월 금리인하 기대감에도, 지수 고점 부담 속 일라이릴리(-14.1%,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 부진) 폭락 등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(다우 -0.5%, S&P500 -0.1%, 나스닥 +0.4%)

최근 주요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친 트럼프는 반도체, 의약품 등 개별 품목 관세 부과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. 일례로, 7일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한 100%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. 일단 전일 국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상승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, 반도체 관세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. 트럼프가 미국 내 생산을 하고 있거나, 투자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조항을 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.

더욱이 한국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(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한국이 동등하게 적용 받는 대우)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. EU가 15% 반도체 관세를 적용 받기로 합의한 만큼, 한국의 반도체 관세율 상한은 사실상 15%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(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합의하는 다른 국가들이 등장할 시, 한국 역시 그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됨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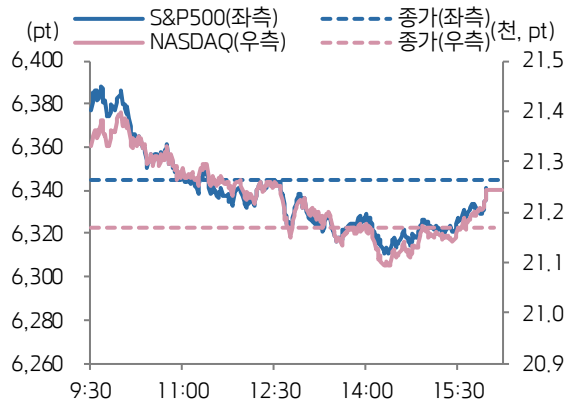
이처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들이 100% 관세율을 적용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 요인.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품목 유형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이는 차주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. 또 한국의 경우, 25일로 예정된 한-미 정상회담에서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, 미국 내 생산 인정 여부, 미국 내 반도체 시설 추가 투자 요구 등이 쟁점화될 전망.

따라서, 일차적으로는 차주까지, 길게는 8월 말까지 관련 노이즈가 증시 내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. 전반적인 증시나 반도체 업종 주가 모두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기에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구간. 다만,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가 월 중 일시적인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.

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반도체 100% 관세 부과 발표에도, 관련 예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속 카카오(+11.9%)의 어닝서프라이즈 등 개별 실적 이슈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(코스피 +0.9%, 코스닥 +0.3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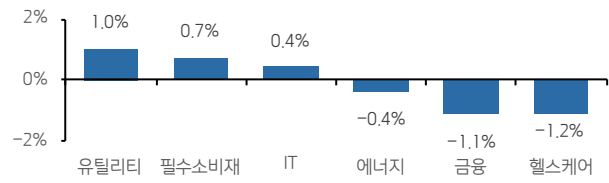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관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(+1.5%)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. 장중 대주주 양도세 등 세제개편안 뉴스플로우, NAVER, 달바 글로벌, 롯데 케미칼 등 개별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으며 종목 장세의 색깔이 짙어질 전망. 또한 MSCI가 8월 리뷰를 통해, MSCI 한국 지수에서 두산, 효성 중공업, LG넥스원(이하 신규 편입), CJ제일제당, LG 이노텍, SKC(이하 편출) 등 일부 종목들의 편출입을 결정했기에. 해당 주식들 간 외국인 수급 및 주가 흐름에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.

## S&amp;P500 &amp;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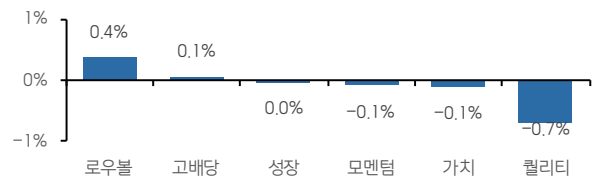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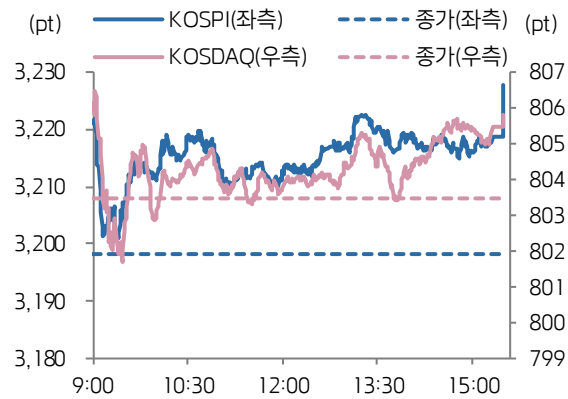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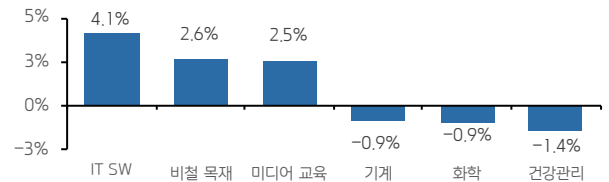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KOSPI &amp;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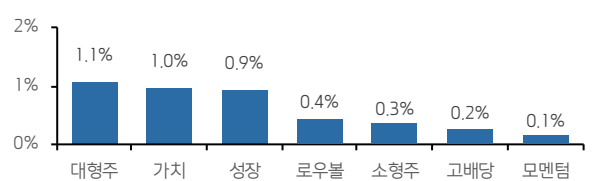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20.03	+3.18%	-11.92%	GM	52.95	+0.91%	-0.03%
마이크로소프트	520.84	-0.78%	+24.04%	일라이릴리	640.86	-14.14%	-16.67%
알파벳	196.52	+0.22%	+4.06%	월마트	103.12	-0.23%	+14.72%
메타	761.83	-1.32%	+30.33%	JP모건	286.94	-1.51%	+21.65%
아마존	223.13	+0.37%	+1.7%	엑손모빌	105.95	-0.53%	+0.29%
테슬라	322.27	+0.74%	-20.2%	세브론	153.16	+0.25%	+8.22%
엔비디아	180.77	+0.75%	+34.63%	제너럴일렉트릭	103.12	-0.2%	+14.7%
브로드컴	303.76	+0.69%	+31.73%	캐터필러	417.12	-2.48%	+16.39%
AMD	172.40	+5.69%	+42.73%	보잉	227.33	+1.02%	+28.44%
마이크론	111.87	+2.84%	+33.22%	넥스트에라	72.58	+2.9%	+2.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3,227.68	+0.92%	+34.52%	USD/KRW	1,386.00	-0.03%	-5.86%
코스피200	435.35	+1.08%	+36.98%	달러 지수	98.08	-0.1%	-9.59%
코스닥	805.81	+0.29%	+18.82%	EUR/USD	1.17	+0.05%	+12.67%
코스닥150	1,349.82	-0.11%	+19.47%	USD/CNH	7.18	-0.06%	-2.14%
S&P500	6,340.00	-0.08%	+7.79%	USD/JPY	147.14	-0.16%	-6.4%
NASDAQ	21,242.70	+0.35%	+10%	채권시장			
다우	43,968.64	-0.51%	+3.35%	가격	DTD(bp)	YTD(bp)	
VIX	16.57	-1.19%	-4.5%	국고채 3년	2.400	-2.5bp	-19.5bp
러셀2000	2,214.72	-0.3%	-0.69%	국고채 10년	2.762	-1.8bp	-10.9bp
필라. 반도체	5,633.70	+1.5%	+13.13%	미국 국채 2년	3.728	+1.4bp	-51.4bp
다우 운송	15,403.41	-1.04%	-3.1%	미국 국채 10년	4.250	+2.4bp	-31.9bp
상해종합	3,639.67	+0.16%	+8.59%	미국 국채 30년	4.826	+0.6bp	+4.5bp
항셍 H	8,981.73	+0.55%	+23.21%	독일 국채 10년	2.630	-2bp	+26.3bp
인도 SENSEX	80,623.26	+0.1%	+3.18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가격	DTD(%)	YTD(%)	
Eurostoxx50	5,332.07	+1.31%	+8.91%	WTI	63.88	-0.73%	-7.62%
MSCI 전세계 지수	935.47	+0.24%	+11.19%	브렌트유	66.43	-0.69%	-11%
MSCI DM 지수	4,098.08	+0.12%	+10.52%	금	3,453.70	+0.59%	+24.82%
MSCI EM 지수	1,260.46	+1.29%	+17.2%	은	38.29	+1.03%	+30.96%
MSCI 한국 ETF	73.44	+0.36%	+44.31%	구리	439.85	-0.33%	+9.24%
디지털화폐				BDI	1,994.00	+3.8%	+100%
비트코인	117,239.92	+1.87%	+25.1%	옥수수	407.00	+1.43%	-8.28%
이더리움	3,876.03	+5.45%	+15.82%	밀	518.25	+1.92%	-10.8%
				대두	993.75	+0.94%	-3.07%
				커피	291.15	+1.66%	+0.6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##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8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# 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